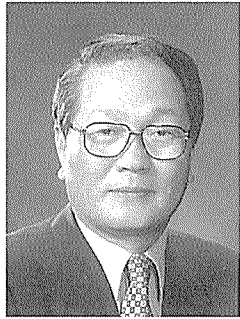


## 건축환경 변화에 적극 맞서

### Actively Facing the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Field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희망찬 辛巳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하게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과 사무소에도 행복과 발전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예년과 달리 마음 한켠에 자리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새해의 희망과 설레임을 억누릅니다. 올 해가 경제 재도약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만,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경

기하락의 징후들은 올 한해 우리경제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로인해 경제사정에 큰 영향을 받는 건축설계업계 또한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업체들의 경영상태 악화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야 하는 고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나라 안팎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긴박한 변화의 기류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현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올 한 해 건축설계업계 앞날에는 적지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건축의 현실은 작은 외적 충격이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다수 건축사사무소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시장경제구조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초마다 마음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왔지만 올해 업계의 상황이 이렇듯 급박한 탓에 우리들의 새해다짐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한 우리 건축설계업계로서는 작금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결연한 각오로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업계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영구조 개선 ▶건축설계 시장질서 확립 ▶건축사업무

영역의 확대 ▶건축사사무소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향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삼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회조직 또한 생사의 기로에 선 우리 건축설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거듭나지 않고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기에 건축정보 및 건축사업부 지원체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능동적인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건축설계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은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위기를 기회삼아 우리 건축계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약화된 건축설계업계의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모두의 의식전환과 구조개혁 의지, 그리고 자발적인 동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경기악화는 비단 건축설계업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므로 그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낸다 하더라도,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관련 정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 없이 추진된 감이 없지 않아 가뜩이나 길길이 먼 우리 건축설계업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신고범위의 확대, 건축사자격의 기술·기능계 통합 자격관리운영법률 적용,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업무 벌칙강화 등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 규제개혁정책은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을 넘어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협회는 그 와중에서 국내 건축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해 UIA가입을 계기로 한국건축단체연합회(FIKA) 구성 문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정책건의나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정책에 협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때론 적지않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까지의 정책 현안들은 전회원의 단결된 힘과 의지에 힘입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초 출범하는 한국건축단체연합회(FIKA)의 경우만해도 본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가 중심이 돼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교육 및 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와 향후 WTO협상 등에 있어 우리 건축사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적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선 예산확보 등 관련단체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범건축계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처럼 건축설계 시장개방 및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 속에서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을 지키고 생존의 고비를 넘기위해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분투해 왔습니다만, 여러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해온 지난 2년여 동안 본인과 협회에 대해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올 한해 협회의 사업과 일들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거 불모에서 기적을 일구어냈던 저력을 되살려, 새해에는 7천7백여 전회원이 단합된 의지와 실천적 노력을 다해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인 또한 처음 시작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남은 임기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인사에 대신합니다.